

조규성 유럽 이적, 여름에 무게...박지성이 조언



2022카타르월드컵의 '라이징 스타'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25)이 소속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스페인 전지훈련에 동행하면서 일단 국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성은 지난 16일 전북 선수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떠났다. K리그1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르베야에서 한 달여간 전지훈련을 통해 2023시즌을 준비한다. 해외 복수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온 조규성은 전북과 스페인행을 함께하면서 국내 잔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에 따르면 조규성은 사실상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유럽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조규성이 일단 동계 훈련을 함께하기로 했다. 아직 잔류와 이적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애초 조규성 측은 월드컵 활약으로 몸값이 뻗을 겨울 유럽으로 가고 싶어했지만 전북 구단은 여름에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봤다. 전북의 선수 이적 등을 관리하는 박지성 디

전북 현대 스페인 동계훈련 동행...일단 국내 잔류 가능성 ↑ 유럽 구단 팀 재편하는 여름 이적시장에 재도전하기로 가닥

렉터가 유럽 팀들의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겨울보다 팀을 재편하는 여름에 이적해야 현지 적응이 더 수월하다고 조규성을 설득해왔다. 조규성은 최근까지도 이적 시점을 두고 고심해왔다. 지난 12일 전북의 전지훈련 미디어캠프 기자회견에서 "어느 선수가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나가고 싶은 것"이라며 "겨울에 안 가면 여름에 제안이 없을 수도 있고, 몸값이 떨어지고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카타르월드컵이 끝난 뒤 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조규성이 100% 아닌 컨디션에서 유럽에 가는 것보다 여름 이적을 통해 가는 게 현지 적응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월드컵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온 조규성은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했다. K리그 한 시즌을 모두 뛰고 월드컵 본선까지 참가해 휴식과 회복에 중점을 뒀다. 당장 유럽으로 건너가 실전을 뒀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K리그1 득점왕(17골)에 오른 조규성



고진영, LPGA 개막전 불참 벌금에 '부상 소명서' 제출 부상 등 사유 있으면 면제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금을 통보받았다. LPGA 투어는 4년 동안 동일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면 2만5000달러(약 3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고진영이 개막전 힐튼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4년 연속 불참한다. 하지만 고진영이 벌금을 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고진영은 이와 관련해 손목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뢰진 소견서를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고진영은 다음달 23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혼다 클래식에서 나설 예정이다. 고진영과 함께 호주 교포 이민지도 개막전 불참으로 벌금을 통보받았다. 이민주의 불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벌금 부과 여부는 향후 LPGA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뉴스

빙속 박지우, 동계유니버시아드 1500m 금메달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두 번째 금메달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기대주 박지우(경희사이버대)가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2분04초41의 트랙레코드를 작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2분06초19를 기록한 2위 야브지크 나탈리아(폴란드)를 1초78 차로 여유있게 제쳤다. 전날 여자 30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박지우는 이를 연속 메달 행진을 벌였다. 지난 16일 김민선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뉴스



박지우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김시우, PGA 투어 2주 연속 우승 도전 오늘 열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시우는 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PGA 투어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800만 달러·우승상금 144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소니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시우는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정상에 선 김시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김시우는 대회 파워랭킹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공식 홈페이지는 "김시우는 소니 오픈에서 우승해 상승 분위기를 탔다. 2년 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고, 지난해 대회에서도 공동 1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뉴스

2023 PIRATES INTERNATIONAL SIGNINGS	
JUN-SEOK SHIM	GIMENEZ YOSMAR
NICOLAS CARRENO	JOSEPH SEQUERA
CARLOS CASTILLO	ANGEL AQUINO
ROMAL GOMEZ	KEURY ALMONTE
JANDERSON LINARES	DARIEL FRANCO
DAVID MATOMA	CRISTIAN JAUREGUI
ANGEL PEREZ	DORIS MARTINEZ
JONATHAN RIVERA	CARLOS MATEO
MIGUEL RODRIGUEZ	RAYMOND MOLLA
JOHNELLY VAN DER LINDEN	BLADIMIRO PICHARDO
ANDRES VILLAFANE	ANTONIO PIMENTEL

“피츠버그 입단 심준석, 계약금은 75만 달러” 美 매체

KBO리그 거처지 않고 빅리그 도전...기대와 달리 계약금 100만 달러 못 넘는 듯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손잡은 심준석(19)의 계약금이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츠버그 유망주 소식을 다루는 파이리츠 프로스펙츠는 17일(한국시간) 피츠버그의 국제 계약 톱5의 사이닝보너스를 소개했다. 지난 16일 피츠버그 입단 소식이 전해진 심준석의 이름도 있었다. 매체는 "우완 투수 심준석은 75만 달러(약 9억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대를 밀도는 액수다. 심준석은 투수고 1학년 때부터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며 초고교급 평가를 받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 구단의 관심을 받던 그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빅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뉴스

케이타 떠난 KB손보, 부진에 속앓이

지난 시즌 MVP 떠난 뒤 하위권...비에나 합류 후 6경기서 2승4패 그쳐

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좀처럼 반등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제 2연패에 빠졌다. 순위는 여전히 6위(6승15패 승점 18)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 도약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5위 한국전력(8승13패 승점 26)에 승점 8차로 뒤져있다. 오히려 7위 삼성화재(5승17패 승점 17)가 훨씬 가깝다. 교체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합류한 뒤에도 승수 쌓기가 쉽지 않다. KB손해보험은 2022~2023시즌 개막전 영입한 니콜라가 깊은 부진에 빠지자 지난달 비에나와 손을 잡았다. 비에나는 2019~2020시즌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V-리그 경험자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비에나가 합류한 뒤 6경기에서 2승4패에 그치고 있다. 비에나는 V-리그 복귀전이자 KB손해보험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경기였던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전에서 33점을 몰아치며 기대감을 키웠다. 아쉬운 점은 단신 아포짓인 비에나가 상대 블로커에 자주 차단 당한다는 것이다. 비에나는 지난 12일 현대캐피탈전에서도 44차례 공격을 시도하면서 19차례 성공했지만, 9차례 상대 블로킹에 가로막혔다. 당시 현대캐피탈의 블로킹을 넘어서려다



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 비에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허벅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비에나는 결국 17일 OK금융그룹전에 결정했고, 팀은 또 졌다. 외국인 선수를 앞세워 신바람을 났던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쓴맛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KB손해보험은 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케이타 덕분에 외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말리 특급'으로 불린 케이타는 지난 시즌 KB손해보험을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도 단연 케이타였다. 케이타가 떠난 뒤 맞은 첫 시즌, 이미 반환점을 돌았지만 KB손해보험은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에나의 부상이 심각하진 않다는 점이다. 일주일 가량 휴식을 취한 비에나는 21일 삼성화재전에서 복귀할 예정이다. 뉴스

김시우는 대회 파워랭킹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공식 홈페이지는 "김시우는 소니 오픈에서 우승해 상승 분위기를 탔다. 2년 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고, 지난해 대회에서도 공동 1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소니 오픈 우승 직후 김시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한국에 계신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시우는 이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16년 대회에서 공동 9위에 올랐던 김시우는 2020년 우승을 차지했다. 디펜딩 자력으로 출격하던 지난해에는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시우와 함께 김주형(21), 임성재(25), 안병훈(32), 이경훈(32)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소니 오픈에서 컷 탈락한 김주형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견재함을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 김시우와 함께 공동 11위에 올랐던 임성재도 우승에 도전한다. 2021년 대회에서 공동 9위에 오른 안병훈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세계랭킹 2위 스테이 세플러(미국), 4위 윤 람(스페인), 5위 페트릭 캔틀레이, 6위 젠더 쇼플리(이상 미국) 등이 우승컵을 노린다. 윤 람은 대회 파워랭킹에서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세플러와 캔틀레이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특히 캔틀레이는 2021년 스테디움코스에서 61타를 쳐 코스 레코드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대회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며 54홀 이후 컷 탈락이 결정된다. 모든 선수들은 1~3라운드 3개의 코스에서 경기한 뒤 최종일에 스테디움 코스에서 라운드를 진행한다. 뉴스